

자료제공 : 2023. 10. 26.(목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: 서울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 
운영부 학예과

경영지원부장	김미경	2124-8810
총무과장	이영순	2124-8812
운영부장	백기영	2124-5203
학예과장	서주영	2124-5265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: 2쪽

### 서울시립미술관, 현대미술 선각자 '백남준 기념관' 활성화 나선다

- 종로구 창신동 '백남준 기념관' 강연 프로그램 개설, 성과기록화 등 활성화
- 전시 및 프로그램 진행에 맞게 시설·콘텐츠 개선... 작가·작품도 심화연구
- 백남준 예술세계 조명...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지속 운영해 나갈 것

-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<백남준 기념관>이 청소년·성인 대상 강연 프로그램 개설, 기념관 운영성과 기록화 등 작가의 예술세계와 정신을 이어 나가고 시민과 공유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.
- 서울시립미술관(관장 최은주)은 한국현대미술의 선각자이자 세계적인 예술가 백남준(1932~2006)을 기리기 위해 <백남준 기념관> 운영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.
  - 창신동(종로구 종로53길 12-1)에 위치한 <백남준 기념관>은 2017년 3월, 백남준이 13년간 성장기를 보낸 창신동 옛 집터의 한옥을 개조하여 작가의 삶과 예술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됐다.
- 미술관은 그동안 개관 기획전 《내일, 세상은 아름다울 것이다》를 시작으로 《석가산의 액션 뮤직(2019)》, 《비디오 콜라주-파운드

푸티지-웨어드 무빙이미지(2020)》 등 다수 기획전과 ‘백남준 탄생 9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(2022)’ 개최 등 기념관이 작품 전시·연구·교육에 활용되어 왔으나 공간 협소, 향온·향습 등 전시에 불리한 환경 등 개선이 필요해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.

- 서울시립미술관은 앞으로 〈백남준 기념관〉을 작가정신이 담긴 창의적인 공간이자 세계적인 예술가, 한국 미술사에도 큰 영향을 준 백남준을 기억하는 곳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.
- 또한 시민과 예술·전문가 모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발굴에도 나선다. 작가의 예술정신을 계승한 신진미술인의 창작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독창적인 예술세계와 실험정신을 불어넣어 주는 어린이·청소년 교육,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.
- 그간의 〈백남준 기념관〉 운영 성과와 과정을 기록화하여 작가에 대한 연구 기반을 마련, 기록물은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과 통합 관리함으로써 백남준과 그의 작품 연구도 심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.
  - 운영 성과는 ▲공간(백남준 기념관 내·외부 영상 촬영 기록화), ▲시간(백남준 기념관 조성부터의 자료를 아카이빙) ▲사람(조성부터 운영까지의 관련 인물들의 구술 채록 기록)으로 기록화하여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로 이관할 예정이다.
-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은 “〈백남준 기념관〉을 한국 현대미술의 선각자이자 세계적인 예술가인 백남준 작가의 작품세계를 조명하고 기억하는 공간으로 지속 발전시켜 시민 모두가 사랑하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